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

김경아¹, 원미화^{2*}, 신선화³, 고기연⁴, 최준경²

¹우송대학교 간호학과, ²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³서정대학교 간호학과, ⁴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간호부

Male nursing students' Practicum Experiences on Delivery Room

Kyoung-Ah Kim¹, Mi-Hwa Won^{2*}, Sun-Hwa Shin³, Gee-Youn Go⁴, Junkyoung Choi²

¹Department of Nursing, Woosong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Sejeo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만실 실습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2012년 7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분만실 실습을 마친 후 한 달 이내의 4년제 간호대학 3학년 남학생 대상으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8명의 질적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6단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0개의 주제(themes), 9개의 주제묶음(clusters) 및 3가지 범주(categories)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는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여성 간호 분야의 학습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전문직 간호사의 태도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의 이미지를 신장시키는 전략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간호교육현장에서 성 차별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의 시행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pecial education setting in nursing practicum is required for male nursing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how male nursing students find and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practicum in a delivery room. Eight male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randomly in junior and senior grade. They had finished delivery room practicum within a month and were interviewed from Jul. 20th, 2012 to Dec. 28th, 2012 until the narrative data were fully saturate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was used. Thirty themes, nine theme clusters, and three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three categories were frightened in the 'female privacy first' environment, sexual inequality for male students, and only one observation chance of the delivery process. From this study, male students did their best against the gender role and female-only field. A strategy to improve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is required to enlighten the social conventions regarding the gender role. In addition, multilateral efforts are expected to eliminate the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to establish the correct role of professional registered nurses.

Keywords : Delivery Room, Experience, Male, Nursing Students, Practicum

*Corresponding Author : Won-Mi Hwa(Ewha Womans University)

Tel: +82-2-3277-2873 email: mihwon@naver.com

Received October 29, 2015

Accepted February 4, 2016

Revised (1st November 26, 2015, 2nd December 28, 2015, 3rd February 1,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의 목표는 간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과거 여성의 고유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간호직종에서 남성 간호사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간호대학 지원자 수는 1990년대 30명,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968명으로 10년 만에 877.5%로 증가되었다[2].

간호학생 및 간호사의 구성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임상실습은 전통적인 병원실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3], 이를 바탕으로 졸업한 후 임상에서 통합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4], 간호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실습과정이 간호학생들에게는 두려움과 긴장감의 연속으로 인식되고 있다[5]. 특히 임상실습 현장에서 남학생은 스스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자신감을 상실하며[6], 남자라는 이유로 임상실습과정에서 거부당하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감으로 인해[7],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10]. 이는 최근 남학생의 간호대학 지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의 여학생 중심의 환경, 여학생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남학생의 고립 및 성별에 따른 획일적인 임상실습 등으로 인하여 남학생이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11].

특히,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남자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실습 중 분만실은 남학생이 경험하는 불평등한 임상실습 환경 중 하나로, 임상실습교육 과정에서 남학생들은 분만실 배치에서 제외되거나 여성 환자에 대한 기본간호 시행 및 관찰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12]. 실제로 임상에서 남자간호사들은 여성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고[13,12,14], 남학생 대부분이 중환자실, 수술장, 응급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모성, 아동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간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신념 형성을 저해하고,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혼돈을 주므로[8], 전문직 간호로 성장하고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습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임상에서 남자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그 수는 증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16], 현재 남자 간호사는 특수 부서에만 편중되어 배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 전문직과 성 역할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자 간호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실습현장의 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분만실 경험[17], 남자 간호학생의 신생아실 실습체험[18],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경험[16], 간호 대학생의 조산원 분만참여 경험[19] 등을 주제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Jung과 Park[16]은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이 분만실 실습 체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실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 [2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개인이 경험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고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체험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의 본질과 의미의 이해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분만실 실습에서 남자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내용을 심층분석하기 위하여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임상실습 체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연구질문은 연구자들의 임상실습 지도 경험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은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시작 질문은 인사와 소개, 도입 질문은 실습기간과 실습장소, 주요 질문으로는 분만실 실습에 대한 주관적 시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 주변의 반응, 분만실 실습의 장·단점, 마무리 질문은 분만실 실습에 관하여 앞으로 바라는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만실 실습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분만실 실습을 종료한 지 한 달 이내에 해당되는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학학생이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와의 이해관계(같은 학교 소속 교수와 학생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 경기, 충청 지역에 위치한 2개의 대학병원 분만실과 3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각각 간호부장과 간호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게시판 등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모집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의 참여자를 목적적 표본추출 하였으며, 그 중 2명의 참여자가 자신의 학과 친구를 소개해 주는 눈덩이 표본추출을 통하여 총 8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6.5세, 미혼의 군필자였으며, 4년제 간호학과에 소속된 천안 소재 6명, 대전 소재 1명, 경기 소재 1명으로 하였다. 분만실 실습 형태는 참여자 중 5명은 분만실만 단독으로 실습하였고, 3명은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함께 실습하였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28일까지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면담은 3명의 연구자에 의해 분만실 실습이 종료된 지 한 달 이내의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면담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서울과 경기도 거주하는 연구자가 대전, 천안 및 경기 지역에 있는 참여자의 집 근

처와 실습지 주변으로 찾아가서 카페나 음식점 및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 중 1차면담 시 부담감과 시간적 제한을 호소한 2명에게 추가로 2차면담을 진행하였다. 현상학은 적은 수의 참여자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으로[20], 면담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지 않는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며[21], 연구 질문이나 포화되는 정도에 따라 면담자를 4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21,22]. 본 연구에서도 8명의 참여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개념이 포화되었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와 차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실습관련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참여자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만실 실습 경험을 언제 하였습니다?”, “분만실 실습 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 간호학생은 분만실 실습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만실 실습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만실 실습에 대한 주변(동기 학생, 실습병동 간호사, 환자, 보호자 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분만실 실습 시 좋거나 혹은 나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합니까?”, “분만실 실습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와 같은 질문이 사용되었다. 면담시간은 1차면담의 경우 60분에서 120분으로, 평균 90분 정도였으며, 2차면담은 평균 60분가량 소요되었다.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 3명의 연구자는 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표정과 चे스처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연구자의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을 현장 일지에 상세히 기술하여, 연구자 모두가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에 면담이 끝난 후 4명의 연구자가 직접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였다. 1회의 면담 내용을 필사하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이었고, 필사 분량은 A4 8-10장 분량이었다.

2.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IRB No 2012-09-04) 확인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목적, 면담 방법 및 녹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 전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알려주었고, 연구 참여를 통해 참여자가 연구결과에 기여하는 점과 면담 소요시간,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도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거절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서면으로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 시행 시 식사 및 음료를 제공하였고, 면담을 마친 후 소정의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Colaizzi [20]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근거로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에 대해 6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는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는 것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필사 내용과 녹취 내용을 비교하며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독하였다. 정독을 통해 참여자의 면담 내용 중 의미 있는 단어, 구, 문장에 줄을 그으며 연구자간에 비교하였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였다. 2단계는 면담 필사 자료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구성(formulating meanings)하였다. 4단계는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s),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categories)하는 과정으로, 연구자들이 논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문장을 주제로 하고, 다시 여러 개의 주제를 모아 구의 형태로 주제묶음을 시행하였다. 이후 주제묶음을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로 범주화 하였고, 각 단어의 의미가 주제묶음과 연구자가 생각하는 의견과 일치하는지, 주제들 간에 중복된 의미가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개별적인 진술로부터 30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9개의 주제묶음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묶음을 3개로 범주화 하였다. 5단계는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체험으로 분석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세심하게 기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본질적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분석된 자료를 참여자 1인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체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분석결과를 논의하였다.

2.6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23]가 제시한 사실성,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실성은 참여자 2인에게 면담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분만실 실습 체험에 대해 공감함을 진술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자간에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현장 일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현상학적 문헌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순환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간 노력을 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일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위해 면담 전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편견과 선입해 부분을 글로 적어 연구자간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매주 2회 직접 만남과 온라인 만남을 통해 녹음된 면담 내용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었는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중 분만실 실습 체험은 101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시 30개의 주제, 9개의 주제묶음과 3가지 범주로 확인되었다(Table 1). 도출된 범주는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으로 묶여졌다. 남자 간호학생은 여자와 같은 간호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성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분만실 실습에서 제한을 받는 불평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결을 찾아 실습을 종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회적 성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분만실 실습에서 제한을 받는 불평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결을 찾아 실습을 종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Table 1. Categories regarding male nursing students in delivery room practicum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Frightened in the 'female privacy first' environment	Discomfort from the negative attention to male nursing student	• Worries about male nursing students having a clinical practicum in a secured unit • Loss of confidence from rejec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 Emotional strain in an unwelcoming clinical environment • People look with amazement on male nursing students
	Cowed and passive himself on delivery room	• Even though the effort, there is no practical solution for this clinical circumstance • No significant exist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in clinic • Fear of being kicked out by a patient
	Hard to develop rapport between male nursing student and sensitive pregnant woman	• Women in labor do not welcome male nursing students, and have prejudices • Male nursing student are always under the supervision, and women in labor look male nursing students with an unwilling glance • Giving up, because of rejection by the women in labor (mother) • Difficult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other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men (inequality issue)	Feelings about social prejudice against male nursing students	• Experiencing negative gender discrimination as male nursing students • Contradictory reactions from patients and parents to male medical staff and male nursing student • Feel the need to change social perceptions when male nursing students are rejected • Difficulty in clinical participating with a fixed idea about the social prejudices
	Strained from nursing practicum by registered nurse	• Male students are not able to be in the labor and delivery unit by registered nurse • Clinical restrictions are applied to male nursing students • Male students are not allowed to attend a maternal education class(breast feeding) by registered nurse
	Excluding by pregnant women in labor and husband.	• Sensitive mothers refuse male nursing students. • Husbands do not like the particip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 Women in labor do not want male nursing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delivery room
Only one observing chance was allowed in labor and childbirth nursing	Hard to be a male registered nurse on delivery room	• Only one opportunity to experience in delivery room as a student • A department where a male nurse cannot be assigned to
	Supporting by himself(male nursing student) with his own way	• Male nursing students will not draw negative attention to themselves • Persistent effort and challenging in order to obtain a clinical experience • Asking for help from medical personnel that are around them
	Thankful for having a practicum itself on delivery room	• New and rewarding clinical experience • Amazement of observing the birth of new life •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concepts

3.1 범주1.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 환경 때문에 위축됨

참여자들의 분만실 실습은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정적인 시선에 불편해하고 대상자 및 의료진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하는 현실의 벽에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드는 과정이었다.

분만실은 전통적으로 분만전후와 분만과정의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간호가 이루어지며, 남성의 접근이 제한된 부서이다. 특히 분만을 앞둔 예민한 산모들은 가족 및

의료진 외의 접근을 극도로 꺼리며, 병동에서도 산모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분만실 특성 때문에 실습 전 참여자들은 실습지도자나 선배, 동기들로부터 분만실 실습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적극적인 실습참여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분만실에서 접하는 대상자와 의료진이 자신의 접근을 꺼려하는 태도와 직접 거부당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결여되고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

는 불가항력적인 실습상황에 좌절하고 실습에 대한 기대를 접고 무기력하게 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3.1.1 주제목 1. 남학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불편함

분만실은 보편적으로 남자간호사가 없고, 분만 과정의 전후를 산모와 가족들이 함께 겪어가는 곳으로 남자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이러한 사회적 성 인식으로 인해 남자 간호학생은 분만실 실습을 앞두고 산모(여성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이나 자신이 남학생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였다. 또한 분만실 간호사가 남학생이 분만실에 실습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며, 의사들이나 산모들도 남학생의 실습을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남자 간호학생은 자신감을 잃고 더욱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자체가 남자 학생들 오는 걸 싫어하던데요. (중략)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어떡하냐, 어떡하냐고.. 물론 다른데 실습 참 갔을 때 걱정이 있긴 하지만, 여성병원만큼의 걱정은 아니었지요.(참여자 2)

(처음 실습 나왔을 때 임부들의 반응은) 그냥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표정은 '제 뭐지?' 하는 표정 같고 첫날에는 그랬는데 갈수록 괜찮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거리낌은 있어 하신. (중략)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분들 표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반겨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 6)

3.1.2 주제목 2. 실습환경에 의해 스스로 주눅 들

남자 간호학생은 분만실에서 산모에게 시행되는 분만 과정이나 처치 시행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정보를 듣고, 자기 스스로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다. 본인이 볼 수 있는 환자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물품, 기구 등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였으며, 분만실에서 환자를 옮겨주고 알아서 빠지게 되었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분만실 실습에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실습에 대한 기대를 접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실습 못할 것) 그건 각오하고 간 거라서 (별 기대도 안 해요). (중략) 그런데 여기는 뭐...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없이, 존재감도 없고.(참여자 2)

분만실에서는 좀... 뭐랄까 제대로 된 실습을 하기엔 힘들 것 같잖아요.(중략) 조금 있는 건 있는데... 누굴 닦할 수 없는 게... 이제, 저 부터가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굴 닦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4)

3.1.3 주제목 3. 예민한 산모에게 접근하기 어려움

다른 임상 실습에서도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렵지만 특히, 예민한 산모는 더욱 접근하기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이 학생이고 더구나 성별이 다른 남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하였다. 남자 간호학생은 임산부의 표정과 반응을 보고 스스로 접근을 꺼려하므로, 분만실 실습에서 산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산모들은 아무래도 좀 예민할 것 같고, 남자간호사도 아니고 간호 학생인데 잘 받아줄지 걱정되더라고요(담당 교수님께서). 남자, 여자환자 가릴 거냐고 하시면서,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상대가 산모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중략) 분만실 실습이어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남자이고 학생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산모들이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1)

가장 힘든 건 임부랑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임부들이 좀 꺼려하는 느낌이 있을 것도 같고...(중략)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자 학생보다 남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제한점이 많다고... 웬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 같아요.(참여자 6)

3.2 범주2.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남자 간호학생은 실습현장에서 전통적 유교 사상에 뿌리한 성차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을 저지하거나 산모와 남편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하는 경

험에서 표현되었다.

3.2.1 주제목음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느낌

남자 간호학생은 실습 전부터 가족, 친구, 선배 및 본인 스스로도 분만실은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성 인식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분만실 실습 현장에서 산모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을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모습과 의료인들 역시 젊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을 꺼려하는 현상을 몸소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남자 간호학생은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남자 간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식도 변화될 것이라 여겼다. 남녀의 차별 없이 산부인과 부서에도 남자 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남자 간호학생에게도 공정한 분만실 실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분만실은 남자 의사는 괜찮은데, 남자 간호사는 안 된다. 똑같은 의료인인데, 똑같은 간호학과 실습생인데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되는지...(중략) 질식 초음파 했던 남자 의사 선생님도 남잔데, 굳이 남학생이라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이유가 있을까 했고 그냥, 의아한 걸 느껴요(참여자 5)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남자니까, 인식에서 남자니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참여자 7)

3.2.2 주제목음 2. 간호사로부터 실습을 저지당함

남자 간호학생은 참관실습인 분만실에서 시행되는 검사, 자연분만과정, 모유수유 교육 등에서 간호사에 의해 관찰할 기회를 제한받거나 박탈당하였다. 분만실은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진료행위가 집중되는 곳이며, 특히 출산 시 간호학생일지라도 입회할 경우 산모의 수치심을 극대화하여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분만실 간호사는 고객중심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남학생의 실습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분만실 간호사에 의한 실습제한으로 참여자들은 간호활동 수행이나 관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고충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의 차트 검토나 간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선생님이 일단 남학생만 빼고 들어오라고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거나 그 때도 그랬구, 또, 질식 초음파 때도 그랬어요 (참여자 5)

제 케이스인데도 (분만실에) 못 들어갔어요 태반이 만출되는 그 때에 가서 봤는데 솔직히 뭘 봤겠어요 저는 그냥 차트만 보고 케이스 과제도... 그냥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고 그냥 저는 제대로 한 게 없으니... 본 게 없으니깐... (참여자 3)

3.2.3 주제목음 3. 산모와 남편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함

참여자들은 간호학생의 신분으로 실습현장에 참여하였으나, 산모가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간호행위가 시행될 때에는 젊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 참여를 거부하였다. 특히, 가족분만실에서의 분만과정 관찰은 산모의 남편에 의해 관찰 기회를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남자 간호학생은 같은 남자로서 남편의 불편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활력증후 체크나 NST(Non-stress test), 태아심음 측정 등과 같은 간호행위 시에도 반복적인 거부를 당했을 때는 산모와 가족에게 원망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환자분이나 특히 남편 분들 많이 싫어하시던데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남편 분들이 표정이... 그니까 계속보고 있으면 '남학생이 왔는데 봐도 될까요?' 하면은 산모분은 '네~'하는데 남편 분은 표정이 어두워있어요 (간호사가) '아! 여기 학생인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냐, 남학생인데 괜찮을까요?' (남편분이)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2)

(모유수유 시 산모들이) 남학생은 안 된다 그러셔서, 저는 밖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어, 물론... 당연히... 밖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참여자 4)

3.3 범주3.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임

남자 간호학생은 개인적으로는 남자로서 결혼을 해서야 올 수 있는 장소이고 실제 취업을 해서도 남자 간호사로서 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며, 예

비간호사로서 분만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여성의 신체, 생리 기전, 분만 등 모성간호학을 배우지만, 남학생은 이론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은 이런 배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학습적인 면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생명의 탄생을 목격한 남학생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느낌을 경험하였으며, 분만실 실습을 시행한 것 자체를 감사하였다.

3.3.1 주제목음 1. 남자간호사로서 설 수 없는 곳

분만실은 남자 간호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남자 간호사가 지원할 수 없는 부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에, 남학생에게는 분만실의 분위기와 대상자를 간호하는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분만실 실습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분만실 실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에, 한 번뿐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분만실 실습에 임하고 있었다.

어차피 나중에 취업가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건 아예. 제가 산부인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번 실습 때만이라도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척 기대하고 갔거든요.(참여자 2)

제가 뭐 나중에 면허증을 따서 거기 분만실로 갈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사실상 산부인과는 못가니까 이때라도 가서 조금 공부를 해 두면 후에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참여자 3)

3.3.2 주제목음 2.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습을 끝 거감

참여자들은 분만실에서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의 제약을 받거나, 환자나 의료진에게 거부를 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학생으로서 실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이들은 실습지에서 남학생임을 가능한 티내지 않고 실습생의 한 명으로 인식되려고 하였고, 제한된 실습환경에서 거부당할 것을 각오 하면서 실습의 기회를 얻으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변인을 변화시키며 실습에 임

하고 있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남학생인게 티나니까.. 저는 그냥 몰 흐르듯이, 다른 실습생속에 묻혀서... 그냥 튀지만 말자... (참여자 3)

근데, 그게 선생님을 잘 따라 다니면서, 일단 부산스럽게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면, 환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참여자 5)

계속 간호사 선생님 따라가며, 따라가도 돼요? 네, 또 어디가시면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가도 돼요?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차치선생님 정도 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산모를 타이르시더라고요 (참여자 2)

3.3.2 주제목음 3. 실습 자체를 감사함

남자 간호학생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책으로만 배우는 이론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여성의 인체와 분만을 다루는 과목이므로 대부분 책이나 동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 참여하는 것은 남학생으로 하여금 분만실 실습이 새롭고 보람되게 느껴지며 오래 기억에 남아 모성간호학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의 아빠가 될 사람으로서 결혼을 한 후에야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목격하고 신생아를 간호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태줄을 직접 잘라보는 경험이나 자연 분만의 전 과정이 아니라 태반이 만출되는 일부분을 관찰한 경우도 있었으나, 남학생은 주어진 기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었다.

분만실가서 좋았던 거는 그래도 첫 경험이니깐 되게 좋던데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갈 곳인데 미리 와본다는 것도 좋았고, 그래도 확실히 실습하니까 이론하고 접목되는 게 많더라고요 (참여자 3)

학생 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제가 결혼을 아직 안했으니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나름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분만실 실습에 대한 남자 간호학생의 체험은 3가지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 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로써, 각각의 맥락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자들은 여성 환자와 분만을 중심으로 간호가 이루어지는 실습환경에서 산모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였고 스스로 실습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하였다. 분만실은 산모의 예민한 신체부위의 노출이 잦고 고통스런 상황으로 인해 극도로 민감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진과 가족들은 산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남학생의 실습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남학생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분만실에 있는 산모와 보호자에 의해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경험하였는데, Choi [12]는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시선이 집중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산부인과 실습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Valerie와 Dwight [2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Eswi와 Sayed [25]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태도를 경험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간호사들이 산모를 대할 때 눈치를 보는 등 남학생이 산모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남학생 스스로가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확립하기에 앞서 여성중심의 병동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Lee, Yang 과 Tu [26]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산부인과 실습을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이해하고, 산모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자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의 환경조성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남학생 스스로도 전문직 간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한다.

두 번째, 분만실 실습 체험은 “남자이기 때문에 겪는 불평등함”으로 대부분의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참여자들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만실 실습 과정에서 간호사와 산모 및 남편으로부터 실습이 저지당하고 거부당하

는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어 효과적인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최근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남학생수와 남자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의 전반적인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은 실습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분만실 실습 전부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른 분야 실습과는 상반된 친구나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도 성별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분만실 실습 전부터 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습 과정에서 간호사의 지시 사항만을 기다리거나 시키는 일만 수행하였다. 간호사로부터 예민한 산모의 간호수행 제한이나 분만과정 또는 모유수유 실습 참관을 거부하는 산모와 남편으로부터 실습을 저지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남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실습 제한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평도 표현하지 못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성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성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차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여성 중심의 병동이나 분만실에서의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교육과정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여성 중심 병동을 실습하기 전에 여성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상황과 감정 변화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수나 실습현장의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남학생이 경험하는 교과 내용과 임상실습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상 실습교육은 졸업 후 전문직 태도 및 임상수기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27], 남학생이 졸업 후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Park [2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 연구에서 간호학에 대한 목표의식 없이 단지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일수록 학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남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교육과정, 교수 관계 및 간호실무현장을 반영하는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범주는 성 역할에 관한 편견으로 인해 어려운 실습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만실 실습자체를 배우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비록 남자간호사가 되어서 근무할 수 없는 부서일지라도, 미래의 간호사로서 환자를 간호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간호학생의 책임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실습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다. 이는 산부인과 실습이 배우의 기회를 얻고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이었다는 Lee 등[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참여자들은 너무도 눈에 띄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위장을 한다거나 몰래 숨어서 관찰하는 것으로 남학생임을 가능한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거부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실습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산모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 모성간호 이론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어 실습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상현장에서의 분만실 실습은 매우 제한적이며, 남학생의 경우 분만실을 비롯한 산부인과 병동의 실습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병동에 배정을 받더라도 간호가 아닌 다른 일들로 실습을 대신하여 교육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단순히 남학생 자신의 노력이나 실습 교육현장의 개선으로는 부족하다. Chan 등[29]은 성(gender)에 따른 간호학 및 임상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남학생의 교육요구에 맞춘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Lee 등[26]도 간호의 전문성을 위해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남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의 교육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현장과 유사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남학생들의 효과적인 간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적, 개인적,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7],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성 및 아동간호학 등에서 남학생의 임상실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간호학과와 남학생 선발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30]. 사회·문화적 성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간호학과 남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교육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 달 이내에 분만실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만실 실습 체험에 의미를 파악하여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은 3가지 범주로 ‘여성 프라이머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프라이머시가 중시되는 실습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며 예민한 산모에게 접근조차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다. 또한 여성 환자를 만나는 다른 병동 실습에 비해 심적 부담감과 불편감이 가중되어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실습에 임하였다. 사회적 성 고정관념과 차별의 경험으로 불평등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이겨나가고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습의 기회를 찾고자 하였으며 주어지는 분만실 실습 자체에 감사하였다. 즉, 남자 간호학생들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여성 간호 분야의 학습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전문직 간호사의 태도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의 이미지를 신장시키는 전략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 성 차별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J. H. Yang, "The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Vol. 6, No. 2, pp. 51-64, 2005.

- [2] K. Y. Kim, e Yonhapnews. 2013 June 1;Sect.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91062>
- [3] K. H. Kim, S. A. Yang & S. J. Shi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linical experience in a rehabilitation center", *Qualitative research*. Vol. 7, No. 1, pp. 57-65, 2006.
- [4] H. M. Son, "Analysis of positioning in the nursing students' narrative of the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129-137.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129>
- [5] J. S. Kim, J. J. Sun & H. S. Kim,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Vol. 10, No. 1, pp. 63-76, 2009.
- [6] H. J. Park &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7] M. H. Kim, "A study of male student'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2, pp. 183-193. 2004.
- [8] J. Evans,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7, No. 3. pp. 321-328,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096.x>
- [9] A. Sttrot, "Issue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pp. 91-97, 2004.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3.09.005>
- [10] E. J. Sullivan, "Men in nursing: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16, No. 5, pp. 253-254, 2000.
DOI: <http://dx.doi.org/10.1053/jpnu.2000.9455>
- [11] E. E. O'Lynn,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3, No. 5, pp. 229-236, 2004.
- [12] S. J. Choi, "Male student'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Qualitative research*. Vol. 4, No. 1, pp. 52-62, 2003.
- [13] K. H. Ann, "Analysis of the work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21, No. 6, pp. 652-665, 2009.
- [14] H. M. Son, C. M. Kim, J. H. Moon & M. S. Lee,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3, No. 1, pp. 17-25, 2003.
- [15] K. S. Bang, M. H. Jun, H. S. Kim, H. M. Son, J. H. Kang, S. J. Yu et al,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1, pp. 22-31,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1.022>
- [16] O. B. Jung & H. J. Park,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64-76,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1.64>
- [17] M. S. Ko, "The observational experience of labor and delivery by student nurse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Nursing*. Vol. 27, No. 4, pp. 892-900. 1997.
- [18] K. S. Baek, "Experiences of newborn nursery care practice among the male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Vol. 7, No. 1, pp. 25-37. 2006.
- [19] J. S. Park, H. J. Kim & S. G. Yeoum,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ed to delivery practice at midwifery clinic",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21, No. 2, pp. 115-127. 2015.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5.21.2.115>
- [20] F. U.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al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21] J. H. Yang & K. R. Shin, "An analysis on phenomenological research i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1998-2002) and desirable writing", *Qualitative Research*, Vol. 4, No. 2, pp. 87-99. 2003.
- [22] K. S. Lee,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henomenology, Hermeneutics, Ideography", *Qualitative Research*, Vol. 14, No. 2, pp.132-144. 2013.
- [23] Y. S. Lincoln &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pp. 75, Beverly Hills, CA: Sage. 1985.
- [24] A. C. Valerie & H. Dwight, "Labor and delivery nurses : A survey of attitudes toward third-year medical students and their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No. 91, pp. 1828-1833, 2004.
- [25] A. Eswi & Y. E. Sayed, "The experience of Egyptian male student nurses during attending maternity nursing clinical cours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1, No. 2, pp. 93-98. 2011.
DOI: <http://dx.doi.org/10.1016/j.nepr.2010.11.012>
- [26] Y. F. Lee, Y. O. Yang & C. L. Tu, "Perceiving gender or profession : the pract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in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ward", *Hu Li Za Zhi*. Vol. 60, No. 3, pp. 64-72, 2013.
- [27] Y. J. Kim & M. H. Chin, "The lived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for essential nursing core skills", *Qualitative Research*. Vol. 13, No. 2, pp. 105-116. 2012.
- [28] Y. R.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6, No. 4, pp. 449-458, 2009.
- [29] W. C. Chan, Y. T. Chan, C. W. Lui, H. Z. Yu, Y. F. Law, K. L. Cheung et al, "Gender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nd clinical performa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 34, No. 3, pp. 377-88, 2014.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3.06.011>
- [30] M. W. Bae, e Newsis. 2012 October 1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1015_0011524558

김 경 아(Kim-Kyoung Ah)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9년 3월 ~ 2010년 11월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 2012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고 기 연(Gee-Youn Go)

[정회원]



- 2001년 8월 : 한양대학교 의료행정학 (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1991년 11월 ~ 2005년 4월 :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간호사
- 2005년 5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수간호사

<관심분야>

성인간호, 대체요법, 의료행정

원 미 화(Won-Mi Hwa)

[정회원]



- 1997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11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1997년 3월 ~ 2011년 1월 : 동의의료원 수간호사

<관심분야>

성인간호, 관상동맥질환, 건강행위

최 준 경(Junkyoung Choi)

[정회원]



- 2010년 12월 : Eastern University, Health Service Management (석사)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07년 12월 ~ 2010년 12월 : Mercy Philadelphia Hospital, USA 간호사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양간호, BLS

신 선 화(Sun-Hwa Shin)

[정회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과(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보건, 응급간호